

무역수지 현황

우리나라의 2017년 무역(貿易)수지(Balance of Payments)는 수입 718억 달러에 불과하고 하반기 들어 수출이 활기를 띠므로써 11월까지 218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Semiconductor), 석유화학(Petrochemation)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의 국제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과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Infomation Communication)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터넷, 정보화 열기의 확산(擴散)으로 반도체(Semiconductor), 컴퓨터(Computer) 무선 통신(Radio Wireless Communication) 기기, LCD(Liquid Crystal Display)등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이 활기를 띤 것도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 하반기 들어 엔화가 강세로 발전됨에 따라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되면서 경공업제품(Light Industry Articles) 등 수출부진 품목(品目)의 수출마저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2020년 수출 전망은 어떠할까? 우선 국내외 여건 면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2018년 보다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수출입 및 경상수지 전망

	2005년	2010년	2015년	비고
수출	1323	1434	1563	
수입	933	1194	1424	
수출입 차	390	240	139	
경상수 지	406	257	116	
평균				

(단위 : 억 달러)

국내 경제성장 전망

첫째, 2018년 우리나라 경제는 7%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 구조조정(Structural Reform)이 어느 정도 진전됨에 따라 2018년에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본격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賃金) 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의 소비역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둘째, 2018년에도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 흑자가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 유입 및 증시활황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 최근의 달러인상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展望)이다.

셋째, 세계경제(World Economy)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바로 수입금액의 증가로 직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경제연구의 수석 연구원 신현수

sinhs@industrial.re.kr